

2023 봄, 여름 패션 컬렉션 분석 및 스타일링(룩. 컬러. 악세서리)

안 현 성 교수 /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 및 생활비 위기 등이 패션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실용성 및 지속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런웨이에서도 유틸리티, 캐주얼 오피스룩, 미니멀룩 등 실용성을 갖춘 스타일들이 주요 트렌드로 떠올랐으며, 반면 파티, 히피, 리조트 등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여행 및 페스티벌 등 일상탈출을 위한 화려한 스타일들도 다양하게 등장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캐주얼 스타일중에서도 기능성과 내구성 등을 갖춘 유틸리티 스타일이 런웨이를 강세를 보였으며, 다양한 룩에 유틸리티 아이템들을 미스매치하여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한다. 팬데믹 이후 드레스업 페미닌 스타일이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번 시즌에는 란제리에서 영감을 받은 센슈얼 페미닌룩이 트렌드로 떠올랐다. 속옷 같은 디테일과 레이스, 시어(sheer), 새틴 등의 소재를 재해석해 도심 속에서도 세련되게 연출가능한 란제리룩을 완성한다. 파티룩을 위한 블링블링한 소재들이 런웨이에 대거 등장했으며, 이러한 소재들은 S/S시즌을 위한 라이트한 느낌으로 실용성을 더해 홀리데이를 위한 특별한 룩이 아닌 일상속 유니크한 룩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브라이트한 컬러와 광택 등을 더해 도파민을 자극하는 스타일들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일상탈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팬데믹 이후 실용성을 겸비한 유연한 오피스룩이 신개념 오피스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에도 데님을 활용한 캐주얼 오피스룩이 주요 트렌드로 보여지고 있다. 테일러드 재킷 등 포멀 아이템과 데님의 매치, 심플하게 업데이트 된 데님을 활용한 포멀룩이 일상을 더욱 즐겁게 연출할 수 있게 한다. 수 세기에 걸쳐 남성복의 긴 역사를 지닌 테일러링은 성별 불문한 genderfluid 테일러링으로 새로운 댄디즘, 남성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남성복 쇼에서는 수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댄디즘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luxury menswear를 다시 주목받게 만들고 있다. 남성 브랜드들은 더욱 더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고, 남성복과 캐주얼 웨어, 스포츠웨어를 결합한다. 고급스러운 남성복과 현대적인 스포츠웨어를 결합하여 편안한 스타일링으로 일상에 여유와 럭셔리 함을 느끼게 해 준다.

학력 및 경력

- * 프랑스 장식미술학교 MJM 졸업
-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이학석사
-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디자인학 박사
- * 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의상디자인학 전공 주임교수
원디자인 사외이사